

현장

“연말특수 코앞인데”...코로나 재확산에 노심초사

연말 예약문의 속출 “특수 기대되지만”...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아 식당가 불안

양정선 기자

지난 27일 오후 7시 전주 덕진구 한 음식점. 50여석 규모의 식당은 손님으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예약·단체손님 등이 몰리면서 직원들도 바빠 움직였다. 남들이 보기엔 ‘대박집’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정은 달랐다. “불안한 행복”이라고 운을 댄 사장 최모(51)씨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올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두려움의 근원은 코로나19다. 지난해 연말특수를 앞두고 터진 코로나 대유행 사태로 최씨는 5,00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연말 회식 등을 고려해 직원을 새로 뽑고, 식재료를 미리 주문 해둔 것도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면서 “올 연말도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연말·연시특수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대감이 근심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 기로에선 정부가 방역수칙강화를 고심하면서다. 당초 26일 예정됐던 방역 강화 대책 발표 연기는 자영업자들의 불안을 더 키웠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위드 코로나 시행 중반이다. 전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45)씨는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쫘트였는데, 연말연시를 목전에 두고 이게 중단되면 다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가 먼저이긴 하지만, 방역수칙 등이 강화되는 쪽이라면 달갑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면 솔직히 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돌과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떨 바에야 방역수칙을 잠시 강화해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29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비상계획 발동 및 방역패스 확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 탄소 배출량 감축 '채식의 날' 운영

비건탕수육, 쌀누룩유산균음료, 김치 등. 지난 26일 전주시청 구내식당 그야말로 ‘풀밭’이었다. 전주시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채식의 날로 정하면서다. 이는 완산-덕진구청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관은 단 한 끼라도 채식으로만 구성된 식단을 통해 육류 소비가 낳는 탄소 배출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채식의 날 첫 메뉴로는 비건빵과 식물성유산균음료,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든 탄수육 등이 나왔다. 이날 식단으로 감축한 탄소 배출량은 직원 1명 당 약 3.25kg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채식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채식의 날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채식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을 위해 시는 ‘채식인의 마음부엌’과 ‘비건 체험의 날’ 등의 운영도 앞두고 있다. /양정선 기자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뮤지션 7팀, 라디오 출연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는 ‘5기 창작자 지원사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뮤지션 7팀이 지역 라디오 특집 방송에 출연해 최근 발매된 자작곡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뮤지션들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각 한 팀씩 JTBC 안준성의 행복발전소에 출연해 직접 만든 곡 등 앨범을 소개했다. 또 곡 작업 과정, 팀 결성 이야기, 향후 활동계획, 지원 사업 관련 소회 등 음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레드콘 음악창작소는 전북지역 대중음악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들을 선발, 안정적 대중음악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전북도가 주최하며, (재)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는 뮤지션 선발 오디션을 통해 지역 내



신인 7팀을 발굴했다. 이후 팀별 창작곡의 녹음·믹싱·마스터링뿐만 아니라 전문 엔지니어 기술 지원, 저작권 가입등록, 온라인 대형 음원 플랫폼 유통에 이르기까지 앨범 발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했다. 선정된 뮤지션 7팀(김관우, 행로남, 임효섭, 임형삼, OPIUS, 토리밴드, 슬로우진)의 성과물인 앨범은 이날 초 각종 온라인 음원 유통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공현철 기자



전주시의회, 이동주거권 보장 위한 시간 마련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의회가 아동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전주시의회는 28일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켜줘! 그린홈즈, child voice’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동화 의장과 이남숙(동서학, 서학평화1·2동)의원, 조목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및 아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관 측은 아동들의 주거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전달했다. 강 의장은 “아이들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은

건강, 학업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전주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 의견 청취 및 제안 활동 등을 위해 집다운 집으로 아동 주거 관련 연구와 토론회, 아동 주거 그림·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세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서전주로타리클럽(주)에코스ENC 맞손

전주시와 지역 봉사단체, 민간기업이 손을 맞잡고 주거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박지원), ㈜에코스ENC(대표이사 이병섭)는 지난 25일 주거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지원했다. 서전주로타리클럽이 사업을 총괄한 가운데 ㈜에코스ENC가 1000만원을 후원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진행을 맡아 추진했다.

이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이 학습에 대한 힘을 북돋울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책장, 도배·장판 등을 지원해 공부방 환경을 쾌적하게 꾸며줬다. 박지원 회장은 “새로운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주 센터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코스ENC와 서전주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주거취약계층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전주 한 식당서 부탄가스 폭발...5명 부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손님 5명이 다쳤다. 28일 전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전주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굴을 삶던 중 부탄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손님 A(53)씨 등 5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폭발 충격으로 음식점 유리창이 깨지고 일부 집기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은 굴을 삶던 용기가 가열돼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현철 기자

2022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주관한 ‘2022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이하 전망대회)’가 끝났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 이번 대회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 3,614명을 기록하는 등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올해는 ‘식품을 통한 연결과 진화’라는 슬로건 아래 식품외식산업의 트렌드 전망, 푸드테크, ESG, 융복합 등 미래사업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담은 15개의 강연이 이틀간 펼쳐졌다. /박상래 기자

친절한 부동산 산재 중개

광고문의 : 063)230-5700
010-3654-5030

공장전문 하나로부동산

대표 박종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공장 매매 및 임대

- 건물 : 2,684㎡ (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토지 : 9,414㎡
- ※ 매매금액 : 12억
- ※ 임대보증금 월세 1년분 월세 평당 1만원(약간조정)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공장 임대

- 건물 : 150평(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보증금 1500만, 월세 평당 1만원 8월 입주가능

010-3651-6304

LBA 재테크 공인중개사

금암동 중앙하이츠A맞은편 버스정류장 옆(구,금암A)

매물접수

(전 북 지 역)

상가, 건물, 토지, 임야
원룸, 아파트, 주택 등

— 투자상담 —

매수자 임차인] 대기중

063)232-7114 / 010-3652-7114

일회용품, 하루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쓰다 버린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